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평화동에 '작은 상담소' 연다

중독문제 선별검사·중독 상담·교육 서비스 무료 제공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 평화동에 '작은 상담소'를 운영한다.

이 상담소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화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중독 문제를 감소시키고 중독 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손을 잡고 문을 연 것.

이에 따라 작은 상담소는 올 12월까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2층 교육실에서 매일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6시까지 운영된다.

이곳은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평소 알코올, 도박 등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중독문제 선별검사와 1대 1 개별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호영 센터장은 "찾아가는 희망파트너 '작은 상담소'가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중독 위험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센터는 보건복지부지정, 전북대 위탁운영 기관으로 2002년 11월 개소해 중독 조기 발견 및 개입서비스

중독질환 관리사업, 가족 지원 사업,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중독으로부터의 회복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여가활동을 위한 DIY체험프로그램, 지역사회 통장 네트워크를 통한 중독문제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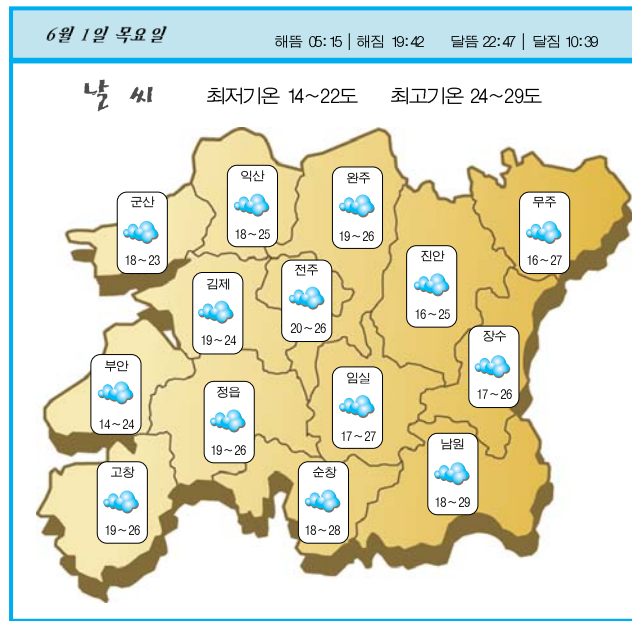
## 강황수 완산경찰서장 전주대 찾아 특강 실시

전주완산경찰서의 강황수 경찰서장이 전주대학교 평화홀을 찾아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미래비전 발전상, 변화된 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강황수 서장은 격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경찰이 마련한 발전상과 미래비전을 조명하고, 예비경찰관으로서 조직관과 사명감을 배양, 과거와 달리 크게 높아진 직업인으로서 경찰관의 사회적 위상을 강조, 그에 따른 책임감 및 자부심을 고안시켜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강을 마친 강황수 서장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치안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함께 치안협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민근 기자



# 완주 이서초 농촌 발명영재학교로 '우뚝'

2년 연속 전북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서 13명 입상 '쾌거'

이서초등학교(교장 오경순)가 지난해 이어 올해 연속 전북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농촌지역 발명영재학교로 부상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한 전북발명품경진대회에 도내 많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서초는 금2명, 은4명, 동7명 등 13명이 입상하였으며 4학년 송은서는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작년에도 11명이 입상했으며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둔 이서초등학교는 이제 발명영재학교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교사가 참여 나도 발명가라는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은봉 추제분위이다.

이서초는 2014년부터 완주군 남부발명교육센터로 운영 하였으며 발명교육 담당 김주완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3~4학년 1반, 5~6학년 1반 등 모두 2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내용은 발명, 과학탐구, 환경, 항공과학, 발명미술 등 다양한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창의성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인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에 초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

오경순 교장은 "다양한 아이디어, 발명지식, 좋은 점을 활용하는 발명기법을 지도하여 발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

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초가 발명 명품학교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박성일 완주군수가 완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창의발명교육에 열정적으로 지원하여 차기에 빌게이츠 같은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박 군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창의 발명영재반을 운영, 완주지역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발명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보존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실감은 오직 발명뿐이며 우수한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해야 한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

## 강흥규 베스트로연금지축 회장 전북대 인재양성 장학금 5백만원 기탁

"전북대에 탈북 자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강흥규 베스트로연금지축(주) 회장이 전북대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평소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장학 사업을 영두 해 두었던 강 회장은 최근 개교 70주년을 맞은 전북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키로 하고 최근 대학을 찾아 기금을 기탁했다.

특히 강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평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왔고 이번 기금 역시 전북대에 탈북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개교 70주년을 맞은 전북대가 발전하고 학생들이 금융전문인력으로 커나가는 데 지원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강 회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은 전북대가 지역과 국가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혹시 탈북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모험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회답했다.

한편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베스트로연금지축(주)은 소비자의 부족한 금융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력과 부적절한 영업 환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종합금융 판매 법인이다.

/정해은 기자

## 남원 원천초, 전교생 모내기 체험 실시

햇살이 따사로운 5월의 마지막 날은 원천초등학교(교장 이문숙) 꼬마농부들이 모를 심는 날이다.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교육과정의 하나로 농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원천초등학교 학생들은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1년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해엔 수확한 쌀로

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떡도 대접해 드리고 맛있는 밥도 지어 먹는 등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날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모를 심는 아이들의 미소에는 교실 안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즐거운 배움이 있음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남원=유영철기자

국립승리사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